



KOCHI자료 11-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작성

KOCHI 곽 복 선 수석연구원

자료정리

중국사업처 서 지 영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작 성: KOCH 수석연구위원 광복선
자료정리: 중국사업처 서지영

[요 약]	1
I. 중국의 경제성장과 재정수지	3
II. 세수(稅收)구조와 중국경제	8
1. 2010년 세수 상황	8
2. 세수 계획과 재정지출로 본 2011 중국경제	20
III. 시사점	25

[요약]

□ 세수 : 전년대비 23.0%(13.2%p증)나 대폭 증가

- 10.3%의 안정적 경제성장, 3%를 넘어선 물가인상에 따른 명목세수액 증가, 높은 대외수입증가와 자동차 판매호조, 2009년도의 완만한 세수 증가속도로 비교대상 기준액이 낮아진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대폭 증가하였음.

□ 2011 세수(稅收)계획 : 국내경기 안정적 성장 전망

- 주요 세목인 국내증치세, 기업소득세 등에서 비교적 높은 세수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와 수출관련 증치세 환급액에 있어서도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음. 이는 중국정부가 금년도 내수경제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역시 안정적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2011년 중국정부 세수 목표

세 목	세수목표 (억 위안)	2011년 목표증감율 (%)	2010년 목표 증감율 (%)
• 국내증치세	17,570	10.5	10.3
• 국내소비세	6,500	7.1	10.1
• 관세	2,170	7.0	4.7
• 기업소득세	8,380	7.5	5.8
• 개인소득세	3,120	7.5	7.4
• 증권거래인지세	550	4.2	4.2
• 차량취득세	1,927	7.5	15
• 수출관련 증치세환급	-8,005	9.2	9

자료원: 2010년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關於2010年中央和地方豫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豫算草案的報告, 재정부)

□ 재정지출과 세수로 짚어 보는 2010 중국 경제

○ 경제 : 적극적 재정정책, 내수확대 기조 → 8% 이상 성장

①재정부가 제시한 2011년 예산안 보고의 재정수입 및 지출, 세수 비목별 증가 목표와 ②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경제정책(적극적 재정정책,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내수확대정책, 산업구조 개선 정책, 민생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중국경제는 정부정책주도하에 순항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8% 전후의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9%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미국, 유럽경제의 회복지연 및 잠재하는 금융 불안, 일본경제의 부진 및 자연재앙, 중동의 정세불안, 자원 가격의 요동 등 외부환경요인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시장 : 안정적 소비증가 → 의료위생, 교육시장 확대

중국정부가 의료위생과 교육, 사회보장 등 민생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신흥전략산업의 주요 항목이자 중국경제의 산업구조개선에 있어 핵심부문인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2자리수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관련 부문의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및 부품 등의 수요 증가 전망

○ 진출기업 : 중국정부 세무조사 지속 강화 예상 → 세무관리 신경 써야

2009년 9,500억 위안, 2010년 1조 위안 재정적자에 이어, 금년에도 9,0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과 관련된 세원의 전반적인 발굴과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기업소득세, 이전가격조사, 증치세 등 세무관리에 있어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임.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 2010년 경기회복으로 세수증가세 뚜렷 —

— 금년에도 9천억 위안 적자예산 편성, 세무관리 강화 대비필요 —

I. 중국의 경제성장과 재정수지

- 중국은 2010년 10.3%의 두 자리 수 경제성장세를 시현하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성장둔화세를 완전히 벗어났음. 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稅收)가 23.0%나 증가(전년대비 13.2%p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도 2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11년 중국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의 보수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였으며¹⁾, 3월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9,000억 위안의 적자재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고하였음.

〈표1〉 중국의 예산편성 및 재정수지

(단위: 억 위안)

	2009	증가율(%)	2010	증가율(%)	2011(예산안)	증가율(%)
재정수입	68,477	11.7	83,080	21.3	89,720	8.0
—중앙	35,896	9.9	42,470	18.3	45,860	8.0
(예산안정조절기금)	*505		*100		*1,500	
—지방	32,581	13.7	40,610	24.2	43,860	8.0
재정지출	75,874	21.5	89,575	17.4	100,220	11.9
—중앙	15,280	14.3	15,973	4.7	17,050	6.7
(예산안정조절기금)			*2,248			
—지방	60,594	22.4	73,602	20.6	83,170	13.0
(차년도이월지출)	*2,608		*1,357			
재정수지	-7,397 (-9,500)		-6,495 (-10,000)		-10,500 (-9,000)	

자료원: 2010중국통계적요(中國統計摘要), 2010년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2010年中央和地方豫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豫算草案的報告, 재정부), 2010년재정수지현황(2010年財政收支情況, 재정부)

주: 재정수입 총계에는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이, 재정지출에는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 차년도 이월 집행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실질적인 재정수지적자는 괄호안의 숫자임.

1) 12.5규획기간(2011-2015) 경제성장목표는 7.0%여서 이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관례적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항상 보수적인 목표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재정 수단을 통해 중국내수경기를 지속적으로 받쳐주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재정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이 되었음. 중국정부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인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수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2009년 9,600억 위안, 2010년 1조 500억 위안의 경기부양적 성격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도 다시 한 번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비록 지난해보다 1,500억 위안 정도 줄어든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중앙 예산안정조절기금 1,500억 위안을 투입키로 하고 있어 사실상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위안 수준이 되고 있음.²⁾
- 중국정부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금년도 대외무역환경이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판단³⁾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려면 내수확대와 연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⁴⁾
 -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대국들과 달리 대외무역의존도가 40-60%대로 높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대외경제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왔음.⁵⁾

2)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2.5% 수준이며, 2011년은 2% 전후로 안정적인 수준임. 물론 지방정부의 숨겨진 재정적자가 상당량에 달한다는 비공식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자료로만 판단할 경우 재정적자 절대규모가 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임.

3) 지난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선진국 경제는 경제성장 동력이 미약하고 높은 실업 상태이며, 일부 국가의 채무위기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주요 선진국들이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주요 대중상품(大宗商品)가격과 주요 화폐의 환율변동이 커지고 있음. 신흥시장의 자산가격과 통화팽창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보호주의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불안정적 불확정적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이라고 언급하여 중국정부가 여전히 대외경제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4) 전인대에서 발표된 2011년 중국경제 주요 지표의 목표는 GDP 8% 전후, CPI 4% 전후, 실업률 4.6% 이내, 신규취업 900만명 이상임. 이 목표수치는 소비자물가상승 외에는 2010년과 차이가 없는 상황임.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정부는 신규 취업(실업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할 수 없으며, 빠오바(보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5)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십억\$, %)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십억\$)					
미국	13,195	13,841	14,166	14,266	14,624
중국	2,658	3,384	4,329	4,910	5,879
교역총액(십억\$)					
미국	2,880	3,105	3,489	2,615	3,180
중국	1,760	2,174	2,562	2,207	2,973
무역의존도(십억\$)					
미국	21.8	22.4	24.6	18.3	21.7
중국	66.2	64.2	59.2	44.9	50.1

자료원: 미국통계국 홈페이지, IMF통계, 중국통계연감, 2010년국민경제및사회발전통계공보, 중국해관통계

주)중국통계국 마지엔탕 국장의 발표('11.3.11)에 따르면 2010년 GDP는 397,983억 위안(58,791억 달러)임.

- 중국정부 역시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인식하고 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의존형에서 내수확대(특히 소비확대에 중점)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성장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제 11차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11.5규획, 2006-2010)기간 중에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금년부터 시작된 12.5규획(2011-2015)에서도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사실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은 선진국경제가 내수 특히 소비확대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투자와 대외무역확대에 의존해왔으며,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개혁개방 이후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음.⁶⁾
- 중국정부는 그동안 경제가 침체 기미를 보이거나 침체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 인프라 등 고정자산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중복투자의 논란이 있었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왔음.⁷⁾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 매년 1~3천억 위안의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하였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고정자산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임.⁸⁾

6) 선진국은 GDP에서 최종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대이지만 중국은 40-50%대에 머물고 있음. 아래 GDP구성 산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GDP중 소비(최종지출)가 차지하는 부분은 50%에 못 미치고 있음.(09년의 경우는 초과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외무역의 감소로 기인된 부분이 큼)

GDP	=	최종지출 (C + G) (민간 + 정부지출)	+	자본형성(I) (고정자산투자+재고투자)	+	순수출 (Exp - Imp) (상품,서비스 순수출)
(2009,경상가격,억원)						
GDP (345,023)	=	165,527 (47.9%)	+	164,464 (47.7%)	+	15,033 (4.4%)

7) 그동안 고정자산투자 특히 정부주도의 투자는 국유대기업 주도 산업의 중복투자, 도로, 공항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 부동산 거품, 풍부한 화폐 유동성(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많으며, 중국정부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침체가 오면 경제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이 되풀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철강, 시멘트, 풍력설비, 석탄화공 등 주요 산업의 중복투자, 생산과잉 문제와 부동산 경기과열 문제가 다시 표면에 부상하였음.

8) 13%의 높은 경제성장(원래 11.9%에서 1.1%p높인 13%로 수정)을 기록한 2007년에는 세수가 1조 위안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수지흑자를 기록하였음.

〈표2〉 중국의 재정적자 현황

(단위 : 억 위안, %)

년도	재정수지	년도	재정수지
2001	- 2,517	2,006	- 1,662
2002	- 3,150	2,007	1,540
2003	- 2,934	2,008	- 202
2004	- 2,091	2,009	- 9,600
2,005	- 2,281	2,010	- 10,000

자료원 : 2009中國統計摘要, 2010年稅收收入增長的結構性分析

주 : 2007, 2008, 2009년에 중앙예산조절기금이 각각 1,032억 위안, 908억 위안, 2,248억 위안이 투입되었음

○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구조로 인해 2008년 하반기 급격한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대외무역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게 되자, 중국정부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고정자산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될 수밖에 없었음. 내수 특히 소비가 경제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에서 고정자산투자 확대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었던 셈임.⁹⁾

○ 향후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이 높지 않고 중국의 대외무역 역시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12.5기획 기간(2011-2015)중 상당기간 중국정부가 적극적 또는 확대성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가는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특히, 물가, 실업, 위안화 평가절상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통화량이나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중국정부로서는 결국 도시화, 권역개발, 산업구조개선(특히, 서비스산업 확대)등을 통한 소득확대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소비성향 제고 등 지속적인 소비 진작정책과 함께 확대성 재정정책을 주요 정책기조로 가져가게 될 것임.

○ 이러한 정황은 중국정부가 2010년 12월초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¹⁰⁾와 2011년 3월 전인대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음.

9) 경제성장을 8%대로 유지하려면, 그것도 성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대외무역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재정확대 그 중에서도 고정자산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10) 매년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차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임. 2010년은 12월10일-12일 3일간 개최되었음.

- 중국재정부도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예산안(초안) 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 도시 및 농촌주민 소득제고를 통한 주민 소비수요 확대(전년과 동일)
- 투자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사회발전의 취약한 부분 강화(전년과 유사)
- 세수정책을 조정하여 기업투자 및 주민소비 유도(전년과 유사)
- 재정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보장 및 개선(전년과 동일)
- 경제구조 조정과 권역간 협력발전을 통한 경제발전방식 전환(전년과 동일)

▣ 중국정부의 2011년 경제정책방향

*중앙경제공작회의(2010.12),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2011.3.5)

1. 적극적인 재정정책: 조세정책(감면 및 환급 기조)유지, '10년 1조 위안 재정수지적자에 이어 2011년도 9,000억 위안 재정수지적자 편성. 일반성 경비 지출 제한.
2.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통화량(M2) 16% 증가, 직접융자비중 제고, 신용 대출구조 개선
3. 주요 중점 분야
 - 물가수준 안정화
 - 내수확대, 특히 주민소비증가
 - 농업기초 강화(3농문제 해결 투자확대)
 - 산업구조개선(제조업 개선, 7대신흥전략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에너지 산업 및 종합운수시스템 건설 등)
 - 권역별 조화로운 발전(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중부굴기 지속확대, 도시화, 에너지절약 및 생태환경건설)
 - 사회보장 및 민생개선
 - 소득분배: 중저소득층 세수부담감소, 개인소득세 공제표준 제고
 - 부동산시장 안정화 : 보장성주택 1천만호, 농촌주거개선 150만호, 부동산 시장 조절기능 강화
 - 의약위생사업: 국가기본약물제도 실시, 기본의료보장수준 제고, 민간 및 외자 자본 의료기구 참여장려

II. 세수(稅收)구조와 중국경제

1. 2010년 세수 상황

2010년에는 세수가 전년대비 23.0%(13.2%p증)나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수입 중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의 86.9%에서 88.1%로 증가하였음.

〈표3〉 재정수입 중 세수의 비중

	단위	2000	2008	2009	2010
재정수입(A)	억 위안	13,395	61,317	68,477	83,080(21.3%증)
세수총액(B)	억 위안	12,582	54,220	59,515	73,202(23.0%증)
B/A×100	%	93.9	88.4	86.9	88.1

자료원: 2009中國統計摘要, 2009,2010年稅收收入增長的結構性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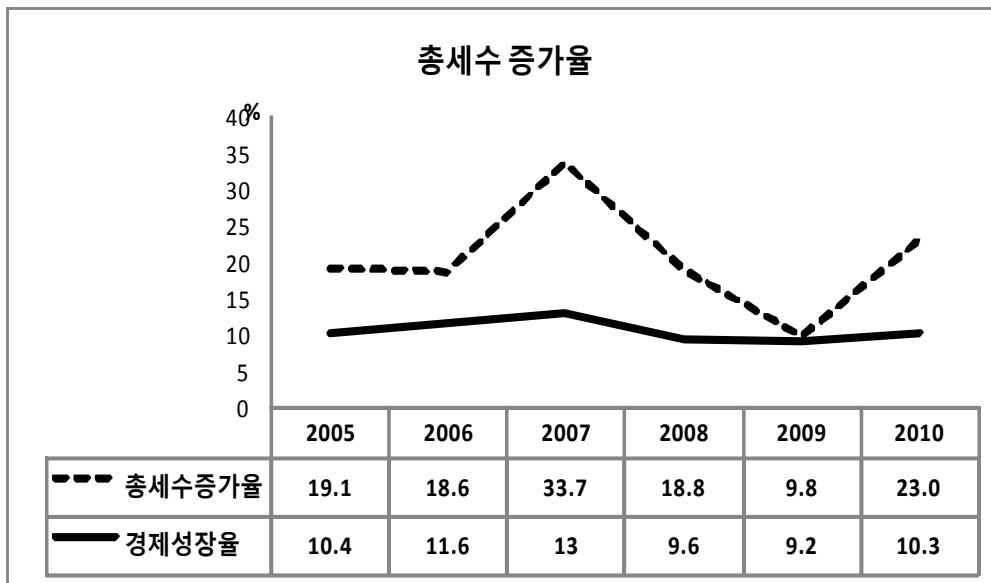
□ 2010 중국 세수수입¹¹⁾ :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

○ 세수동향

- 2010년의 세수 증가율은 23.0%로 금융위기 전인 2008년의 세수증가율과 비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 2010년 2년간 연평균 세수증가율은 16%에 그쳐 금융위기 이전의 세수 증가 속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11) 전체세수 = (과세기관이 징수한 국내세수 + 세관(海關)에서 징수한 관세, 선박세, 대리징수한 수입화물증치세와 소비세 + 재정 혹은 지방세무 기관이 징수한 경지점용세와 취득세) - (수출증치세환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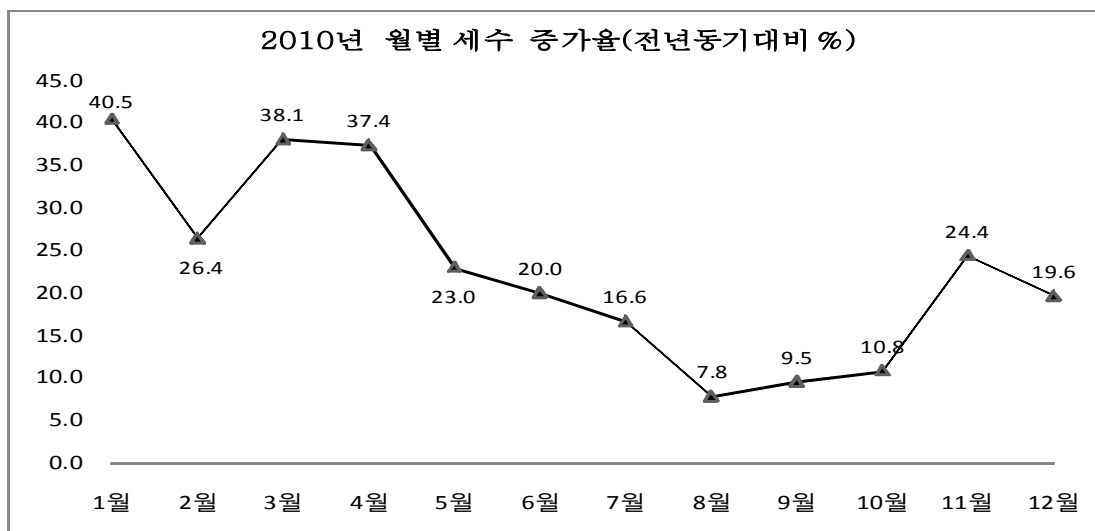
〈표4〉 중국세수증가와 경제성장율



자료원: 각 년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재정부 발표 자료

- 2009년 세수 증가율은 상반기에 낮았고, 하반기에는 높은 추세를 보였었음. 2010년은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에 30.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는 15.3% 증가에 그쳤음.

〈표5〉 월별 세수증가율



자료원: 2010년稅收收入增長的結構性分析, 財政部

- 항목별로는 수입관련 세수와 자동차 관련 세수가 빠른 증가를 보였음. 수입증치세(부가가치세)및 소비세, 관세의 증가 폭이 커 각각 전년대비 35.7%, 36.6%의 증가세를 보였음. 자동차 소비세와 차량 구매세(취득세)도 대폭 증가하여, 각각 55.8%, 54.0%의 증가세를 보였음.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가액이 2010년 세수 증가액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세수 대폭증가 주요 원인

- (안정적 경제성장) 2008, 2009년 한 자리수 경제성장에서 2010년 두 자리수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수증가를 위한 세원(稅源)이 마련되었음. 고정자산투자(23.8% 증가), 사회소비품소매총액(18.4% 증가), 규모이상¹²⁾ 공업생산액(부가가치 기준)(15.7%증가), 수출입총액 (34.7% 증가),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49.9%증, 11월까지) 등 특히 세수와 관련도가 비교적 높은 경제지표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요 세목의 세수가 증가하였음.
-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세수액 증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공산품 공장출하 가격지수(PPI)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명목 세수액의 규모가 늘어나 관련 세수의 비교적 빠른 증가를 가져 왔음.
- (높은 수입증가, 자동차 판매호조) 수입액의 빠른 회복(38.7% 증가)과 자동차 판매 증가로 수입관련 세수와 차량구매세 및 소비세 등이 대폭 증가하였음.
- (기저효과) 2009년도의 완만한 세수 증가속도로 비교대상 기준액이 낮아진데 따른 기저효과로 2010년에 세수 증가율이 높아졌음.
- (징세관리 강화) 세무 기관들이 여러 조치를 취하여 징수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수 증가를 가져왔음. 중국정부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연초에 각급 세무국에 세무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바 있음.

12) 주요 영업수입이 연간 5백만 위안 이상인 기업

<표6> 2010년 세목별 세수 현황

세목	세수 (억 위안)		증감율 (%)	구성비 (%)
	2009	2010		
세수총액	59,515	73,202	23.0	100.0
국내증치세(國內增值稅)	18,481	21,092	14.1	28.8
국내소비세(國內消費稅)	4,759	6,072	27.5	8.3
수입관련 증치세, 소비세	7,729	10,487	35.7	14.3
관세	1,484	2,027	36.6	2.8
수출관련 증치세환급	△6,487	△7,327	13.0	
영업세	9,014	11,158	23.8	15.2
기업소득세	11,534	12,843	11.3	17.5
개인소득세	3,949	4,837	22.5	6.6
증권거래인지세(印花稅)	510	544	6.6	0.7
부동산세(房產稅) ¹³⁾	804	894	11.2	1.2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1,163	1,792	54.0	2.4
도시토지사용세	921	1,004	9.0	1.4
토지증치세	719	1,277	77.4	1.7
경지점용세	633	888	40.3	1.2
자원세(資源稅)	338	418	23.5	0.6
취득세(契稅) ¹⁴⁾	1,735	2,465	42.1	3.4

자료원: 2010년 세수수입증가 구조적 분석(2010年稅收收入增長的結構性分析), 재정부

□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

○ 국내증치세 세수 : 비교적 빠른 14.1% 증가세 시현

■ 조세항목 중 최대 세수원(전체 세수의 28.8% 점유)

■ 과세기준대상: 공업생산액(부가가치 증가기준)과 상업거래액(부가가치기준)과 대체로 일치

13) 기업보유 건물과 임대건물에 과세. 기업보유 건물에만 부과했으나 부동산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주택에도 부과하는 방안(상하이, 충칭 실시) 논의

14)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과세

- 세수 증가속도가 전년대비 11.4%p 증가한 14.1% 증가

- 업종별

- 세수 대폭 증가: 정제유(73.2% 증), 원유(39.7%증), 석탄(29.7%증)
- 세수 대폭 감소: 강괴, 강재(20% 감소)

(증가업종)

- 1) 공업부가 가치액의 안정적 증가: 2010년 규모이상의 기업의 공업 생산액 (부가가치기준)은 전년 대비 15.7% 증가
- 2) 소비재 가격 상승 및 소비품소매총액 증가: 2010년 CPI 3.3% 상승, 소비 품소매총액 18.4% 증가
- 3) 공산품 출하 가격의 상승: 공산품 공장출하가격 상승은 증치세 과세기준대 상액을 확대시켰음. PPI 전년대비 5.5% 상승
- 4) 정제유, 원유의 거래량과 가격의 동반 상승: 정제유와 원유의 증치세 빠른 증가. 2010.1-11월 정제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원유의 평균 가격은 약 28% 상승
- 5) 석탄공업생산(부가가치기준)의 빠른 증가: 관련 분야의 증치세 세수 증가에 기여. 2010.1-11월간 관련 분야의 증치세 17.8% 증가

(감소업종)

- 2010년 증치세 세수 감소가 비교적 큰 업종은 강괴, 강재 분야로 전년 대비 20% 감소. 철광석 가격의 상승, 강재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매입증치세액 증가, 매출증치세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국내소비세 세수: 27.5%증가(2009년 증가율 85.3%, 증가율 뚜렷한 하락세)

- 6,072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8.3% 차지
- 과세기준대상: 자동차, 정제유, 담배, 주류 등 14개 제품의 판매액
- 14개 품목 중 소비세 징수가 활발했던 품목은 자동차, 담배, 귀금속 장식품 세 종류로 소비세 세수가 각각 55.8%, 32%, 29% 증가하였음.
- 국내소비세 세수수입 증가폭이 대폭 하락한 원인은 2009년에 도입된 담배 소비세를 인상, 정제유 관련 세제 개혁의 여파로 2009년 소비세의 빠른 증가가 있었으나, 2010년 들어 관련 조치의 세수증가 효과가 정상화된데 따름.

■ 주요 부문의 소비세 세수 증가 원인은 아래와 같음

- 1) 자동차: 승용차 판매량의 대폭 증가 → 자동차 소비세 급증.
 - 2010년 승용차 판매량은 1,376만대로 전년 대비 33.2%증가.
- 2) 담배: 판매량 대폭 증가 → 담배 소비세 대폭 증가.
 - 2010년 담배생산지에서 제조가공공장으로 판매단계에서 담배 판매액이 전년대비 16.9% 증가,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판매단계에서 담배 판매액 전년 대비 16.2% 증가.
- 3) 귀금속 장식품: 황금 등 귀금속 장식품에 대한 투자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금, 은 등 보석판매액이 전년대비 46% 증가

○ 영업세 세수: 23.8% 증가(전년보다 5.6%p 빠름)

- 1조 1,158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15.2% 차지.
- 과세기준대상: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전기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등 9개 부문에서 취득한 영업수입임.

■ 업종별로는 보험업(37.8% 증가), 부동산(32.4% 증가), 건축업(30.7% 증가)분야의 영업세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임대와 상업 서비스업(24.3% 증가), 숙박요식업(18.6% 증가)은 안정된 세수증가를 보였음.

■ 세수 증가율이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추세(前高後低)를 보였는데, 이는 2009년에 상반기 세수 둔화 하반기 증가(前低後高) 패턴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임. 또한, 중국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가격억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부동산거래액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영업세수 역시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

■ 주요 부문의 영업세 세수 증가 원인은 아래와 같음

1) (보험)보험업무 규모 확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영업세 세수의 빠른 증가를 가져옴. 2010.1-11월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31.6% 증가.

2) (건축)비교적 빠른 고정자산투자, 판매용 건물 건축의 증가로 부동산영업세 및 건축분야 영업세 증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고, 주택(商品房)판매액이 전년대비 18.3% 증가. 2010.1-11월간 건축 설비설치 공사는 전년대비 24.2% 증가.

3) (서비스업) 관광업, 복리복권 등 각종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은 임대와 상업서비스업의 영업세 세수의 비교적 빠른 증가를 가져 왔음. 2010년 관광업 총수입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복권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25.5% 증가. 숙박요식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영업세 세수가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음. 2010.1-11월 숙박요식업 수입은 전년대비 18% 증가함.

○ 기업소득세 세수: 11.3% 증가(전년보다 8.1%p 빠름)

- 1조 2,843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17.5% 차지.
- 과세기준대상: 기업이윤총액
- (개요)전기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기업소득세 세수가 증가함. 이중 공업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는 5,1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0.4% 증가하였음. 그 중 정제유, 교통 운수설비 기업의 소득세가 각각 119.5%, 66.3% 대폭 증가하였음. 기타 업종 중에 부동산 기업 소득세가 전년대비 50% 증가함.
- 주요 부문 기업소득세 세수 증가 원인
 - 1) 공업기업의 전체적 효율과 이익 증가로 기업이윤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업기업의 소득세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2010.1-11월간 규모이상 공업의 이윤은 전년 대비 49.4% 증가함.
 - 2) 2010년 정제유의 가격이 여러 차례 인상되면서, 정제유 등 업종의 이윤과 기업소득세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3) 부동산 판매액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부동산 및 관련 업종의 기업소득세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임.
 - 4) 산업구조조정과 설비투자의 증가로 교통운수설비 등 산업의 발전이 빨라져 관련 업종의 기업소득세 세수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2010.1-11월간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업종의 이윤은 전년대비 59.7% 증가

○ **개인소득세 세수**: 22.5% 증가(전년보다 16.4%p 빠름)

■ 4,837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6.6% 차지.

■ **과세기준대상**: 개인(주로 도시주민)소득

■ (개요)저축이자소득 세수가 76.9% 감소한 것 이외에, 기타 부문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빠른 증가세 유지. 그 중 임금(급여)소득관련 세수 26.8% 증가,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관련 세수 24.7% 증가, 노동보수관련 소득세세수는 22.6% 증가, 재산양도소득관련 세수는 52.2% 증가(건물 양도 소득세 세수는 8.3% 증가)함. 저축이자소득 세수는 2008.10월부터 실시한 저축이자소득 및 개인투자자가 취득한 증권거래결산자금 이자소득 잠정 면제조치의 지속으로 대폭감소세.

■ **개인소득세 세수 증가 주요 원인**

- 1) 주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세원(稅源)토대가 확대됨. 2010년 도시주민 일인당가처분소득은 19,109위안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고, 그중 급여성(工資性)수입은 17.9% 증가하였음.
- 2) 2010.1.1일부터 상장기업(주로 국유기업) 보유주식 중 유통이 제한되어 있던 판매제한 주식(限售股)의 양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재산양도 소득세 세수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음.
- 3) 2010.10.1일부터 개인이 보유주택을 판매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이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더 이상 감면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소득세 징수범위 확대.
- 4) 세무기관의 지속적인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 관세 및 수입관련 세수: 대폭증가(증가율 월별 둔화추세)

■ 수입관련 증치세, 소비세 세수는 1조 487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14.3% 차지. 관련 세수 증가율은 35.7%로 전년대비 31.1%p 증가. 관세는 2,027억 위안으로 36.6% 증가(전년대비 52.8%p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수의 17% 차지.

■ 과세기준대상: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액

■ 관련 세수 증가 및 월별 증가율 둔화 요인

1)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입물량과 가격이 상승하였음. 2010년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액은 7,680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액의 55%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43.7% 증가. 대부분의 기초 상품(大宗商品)의 수입량과 가격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 예를 들면 대두의 수입량은 5,480톤으로 28.8% 증가하였고,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57.7달러로 33.5% 상승하였음. 수입 원유는 23,931만 톤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고,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564.7달러로 51.4% 상승함.

2) 수입관련 세수의 증가 속도가 월별로 둔화된 원인은 2009년에 관련 수입세 세수가 '전저후고(前低後高)' 현상을 나타낸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무역 수입액 증가폭이 월별로 둔화되었음.(2010년 일반무역 수입액이 전년대비 43.7%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증가율에 비하면 12.9%p 낮은 수치임)

□ 기타 세목별 세수 현황

○ 취득세(계세) 세수: 전년대비 42.1% 증가

- 2,465억 위안으로 전체세수의 3.4% 점유

- 과세기준대상: 토지와 부동산의 총 거래액

- (증가요인)토지 거래액은 국토부의 토지사용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동산 거래액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량과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음. 취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부동산 거래액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2010년 주택(商品房) 판매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함.

○ 차량취득세(車輛購値稅) 세수: 전년대비 54.0% 대폭 증가

- 1,792억 위안으로 전체세수의 2.4% 점유

- 과세기준대상: 차량(자동차, 모터사이클, 전철, 트레일러, 농업용운 수차)의 판매총액.

- (증가요인)

- 1) 자동차 판매량 대폭 증가. 2010년 판매량 1,806만대(32.4% 증가)

- 2) 자동차취득세 우대정책의 조정. 2010.1.1일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5%에서 7.5%로 인상함에 따라 차량 취득세 증가.

○ 부동산세(房產稅)세수: 전년대비 11.2% 증가

- 894억 위안으로 전체세수의 1.2% 점유
- 과세기준대상: 기업이 보유한 자체사용 건물의 원가총액과 임대건물의 임대료 수입 총액
- (증가요인)세수 증가속도는 납세대상자의 부동산 보유량과 부동산 임대 가격의 증가속도에 의해 결정됨. 2010년 사무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보유량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수 증가. 사무용 건물과 상업영업용 건물의 판매액은 각각 31.2%와 46.3% 증가.

○ 토지관련세 세수: 빠른 증가세 보임

- 도시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경지점용세의 세수 총계는 3,1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으며, 전체세수의 4.3% 점유.
- 과세기준대상:
 - 도시토지사용세 - 납세자가 점용한 토지면적.
 - 토지증치세 - 납세자가 판매한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의 토지증치세 수익 총액
 - 경지점용세 - 납세자가 실제 점용한 경지 면적
- (증가원인)
 - 도시토지사용세 세수: 1,004억 위안 9.0% 증가. 사무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의 판매면적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 2010년 사무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의 판매면적은 각각 21.9%, 29.9% 증가.
 - 토지증치세 세수: 1,277억 위안 77.4% 증가. 주택 판매액의 빠른 증가와 각 지역 세무기관의 토지증치세 청산 강화.
 - 경지점용세 세수: 888억 위안 40.3% 증가.

○ 증권거래인지세 세수: 전년대비 6.62% 증가(54.5%p 증가)

■ 544억 위안으로 전체세수의 0.7% 점유

■ 과세기준대상: 주식(A주, B주) 거래총액

■ (증가요인) 주식시장의 회복세, 상하이, 선전 주식시장 거래액의 증가. 2010년 선전 주식시장 거래총액은 전년대비 27% 증가.

〈표7〉 2010년 주요 경제 지표와 주요 세목 세수의 증가율 비교표

주요경제지표	전년대비증가율	주요세목	전년대비증가율
2010년 공업증치세	15.7%	국내증치세	14.1%
2010년 도시고정자산투자	24.5%		
2010년 사회소비품판매총액	18.4%		
2010년 1월~11월 규모이상의 공업기업 이윤	49.4%	기업소득세	11.3%
2010년 일반무역 수입액	43.7%	수입물품 증치세, 소비세	35.7%
		관세	36.6%

자료원: 상동

2. 세수 계획과 재정지출로 본 2011 중국경제

□ 세수(稅收)계획: 중국 국내경기 안정적 성장 전망

○ 중국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¹⁵⁾을 살펴보면 전체 재정수입 증가목표를 경제성장목표와 동일한 8.0%로 잡았음(전년대비 0.1%p 높은 수준)

– 2009년, 2010년 실제 재정수입 증가율인 11.7%, 21.3%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방정부재정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았던 예년과

15) 중국재정부는 2011.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2010년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關於2010年中央和地方預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預算草案的報告)를 제출하였음.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율을 똑같은 8.0%로 설정하였음.

-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의 경우 주요 세목인 국내증치세, 관세, 기업소득세 등에서 비교적 높은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증치세의 환급도 지난해 예산안 목표치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있어, 중국정부가 대내외 경제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국내소비세, 개인소득세, 차량취득세 등은 지난해에 비해 더 낮은 증가율을 목표로 잡고 있음. 이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취소, 농촌지역 자동차 구매 지원정책(汽車下鄉)정책의 종결, 주요 소비지인 베이징의 번호판 발급량 제한 등 정책에 따른 자동차 수요증가의 둔화와 담배관련 소비세 인상효과의 점진적인 소멸 등에 따라 국내소비세 부문의 세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임.
- 한편,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7.5%의 세수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소득분배강화와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되어 온 소득세 공제기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표8〉 2011년 중국정부 세수 목표

세 목	세수목표 (억 위안)	2011년 목표증감율 (%)	2010년 목표증감율 (%)
• 국내증치세	17,570	10.5	10.3
• 국내소비세	6,500	7.1	10.1
• 관세	2,170	7.0	4.7
• 기업소득세	8,380	7.5	5.8
• 개인소득세	3,120	7.5	7.4
• 증권거래인지세	550	4.2	4.2
• 차량취득세	1,927	7.5	15
• 수출관련 증치세환급	-8,005	9.2	9

자료원: 2010년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關於2010年中央和地方豫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豫算草案的報告, 재정부)

□ 재정지출 계획: 환경과 민생부문에 중점

○ 중국 정부는 2011 전체 재정지출목표를 11.9% 증가(지난해 목표치보다 0.5%p 증가)시키는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를 세웠음.

– 중국의 실질 재정지출 증가율은 '08년 25.4%, '09년 21.5%, '10년 17.4%로 매년 재정지출목표치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상황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3년 연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확대와 내수소비 증가를 목표로 하고있는 중국경제는 금년에도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추세와 목표치를 상회하는 지출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6.7%의 목표를 제시하였음('08년 16.9%, '09년 14.3%, '10년 4.7%¹⁶⁾)

○ 부문별로 교육(16.3%), 의료위생(16.3%), 사회보장 및 취업(16.6%), 교육(16.3%), 농림수산자원업무(18.3%)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지난해보다 더 늘릴 계획이어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12차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의 주요 목표인 소득분배와 민생안정과 관련된 부문의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10.3%증가), 상업서비스(3.3%증가), 국토, 자원, 기상 등(22.9%증가)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지출 증가폭을 낮춘 목표를 제시하였음.

– 특히, 경제구조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국정부에서 신흥전략산업분야가 주로 집중되어있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증가폭을 2010년 22.7% 증가에서 금년에는 10.3%의 안정적 증가로 낮춘 것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에는 신흥전략산업 분야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16) 2010년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목표치인 5.0%를 하회하였으나 이는 2,248억 위안에 달하는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이 투입된데 따른 것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정지출구조로 판단할 때 직접적인 산업내 투자보다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9〉 2011년 중국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계획

재정지출비목	지출 (억 위안)	증감 (%)	지출 분야
• 교육	2,963	16.3	• 농촌취학이전 교육 • 도시의무교육단계 학생의 잡비면제 • 도시노동 외지인력 자녀 의무교육 • 중서부지역 초등 및 중 학교 개조 및 안전보강공사 •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육성
• 과학기술	1,944	12.5	• 국가자연과학기금 확대 • 국가급중점실험실 및 기초연구기구 연구능력 육성 • 선진기술연구, 사회공익연구, 주요공통핵심기술 연구개발 • 주요과학연구설비 자체연구개발시범지역확대 • 과학 기술성과의 현실생산능력으로 전환 *2011: R&D/GDP 1.85% 목표
• 문화체육, 매스컴	374	18.5	• 박물관, 기념관 등 공익성문화시설 무료개방 • 농촌 및 기층 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화건설 프로젝트 • 국가주요문물과 유적 지 보호 강화 • 신문매체의 국제적인 전파 능력 구축
• 의료위생	1,728	16.3	• 1)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2)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3)신형농 촌합작 의료보험 참여율 90%이상으로 제고 • 신형 농촌합작의료 보험 및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재정보조표준 제고(일인당 120위안→200위안) • 기층 의료위생기구 기본약물제도 전면실시 • 기층의료위생기구개혁 •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 경비표준 을 15위안→25위안으로 제고 • 공립의원개혁 시범실시 *2011년 병원베드수(매천명당): 3.42장(5.6%증)
• 사회보장 및 취업	4,414	16.6	•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실시지역을 24%의 현(縣)에서 40%의 현으로 확대 및 • 도시 무소득 주민 양로보험범위에 포함 •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 대상, 농촌 5보(五保) ¹⁷⁾ 대 상 등 8천여만명에 대해 1회성 생활보조금 배부 • 기업퇴직인 원 일인당 월 기본양로금을 140위안 수준으로 제고 •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표준 제고 • 창업장려정책 지원범위확대 • 직업기 능훈련 및 창업훈련
• 주거보장	1,292	14.8	•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1,000만호) • 도시, 광산, 산림, 개간지, 석탄광 등 지역의 낙후주택 개선 • 농촌위험주택개조, 유 목민 정착공정

17) 농촌지역의 무노동력, 생활무보장 인력에 대한 사회생활보장. 5보(五保)는 먹는 것, 입는 것, 연료, 아동과 소년들 교육, 장례 등 5개분야에 대한 보장. 保吃 保穿 保烧(燃料) 保教(儿童和少年) 保葬

재정지출비목	지출 (억 원)	증감 (%)	지출 분야
• 농림수자원업무	4,588	18.3	• 수리(水利)에 역점을 둔 농업농촌기초시설 건설(중소형 하천 정비, 소형 저수지 정비, 산사태 등 지질재해지역 정비, 대중형 관개시설 정비 및 절수공정, 농촌전력망 개선 등) • 농작물 우량씨앗 보조금표준 제고, 농기구구매보조 규모 제고 • 현대농업 건설 및 우세특색산업발전 • 식량 주요 생산지를 중점으로 1,000억 근(斤) 추가생산 • 초원생태보호 보조 및 장려 메커니즘 구축) • 농업보험보험료 보조금정책 완비 • 농촌의무교육, 공익성농촌채무 청산 작업
• 국토, 자원, 기상 등	455	22.9	• 광산자원탐사,광산지질환경회복,광산자원절약 및 종합 이용 • 해역(海域)사용 관리감독 및 보호 • 광산탐사권,채광권사용비 및 광산자원보상비 수입을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개발 및 이용에 전문 사용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1,592	10.3	• 중점 에너지절약프로젝트 건설 강화 • 청결생산,에너지절약기술개조,에너지절약산업발전 • 낙후산업에너지 도태 •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 범위확대 • 에너지절약제품 지원범위 확대 • 중금속오염치리,중점 지역 및 중점 유역 생태환경 종합처리 • 중요에너지,자원,원재료 수입장려 • 고오염, 자원 및 에너지 다사용제품의 수출제한 • 저탄소기술연구촉진 *도시생활오수처리율:80%(3.1%p증), 도시쓰레기무해화처리율: 74%(1.5%p증) *도시광산 시범기지건설, 1만개기업 에너지절약-저탄소-환경친화건축운동 추진,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율 1%p제고 *해수담수화 추진
• 교통운수	2,867	10.3	• 농촌도로,국도 등 교통기초시설 건설 • 도시공공버스,농촌여객운송차량 등의 유가(油價)보조 지속 • 지방정부의 2급도로 톨게이트 비 징수 취소 *철도총연장 9.9만km(고속철도1.3만km, 4,700km증가) 도로총연장 410만km(고속도로8.3만km, 9,000km증가)
• 자원탐사, 전력 정보	745	-10.2	• 자원탐사,전력정보 등 기초시설건설 추진 • 신형전략산업 기술연구개발 및 시범실시
• 곡물, 물자저장 관리	1,131	23.9	• 양식위험기금 중앙재정보조 규모 확대 • 밀,쌀 최저수매가 제고 • 식량과 식용유, 석유, 비철금속 등 중요물자의 비축 증대
• 상업서비스업	706	3.3	• 가전하향(家電下鄉),이구환신(以久換新)정책 지속에 따른 보조금 • 농촌지역 현대적인 유통서비스망 구축
• 국방	5,836	12.6	• 군대현대화 및 군인생활대우 개선 등
• 공공안전	1,617	9.6	• 정치, 행정, 법 집행기관 장비수준 제고 등
• 일반공공서비스	1,119	4.3	• 출국비용, 차량구매 및 운영, 공무접대비 동결 등
• 국채원리금상환	1,840	21.7	

자료원: 2010년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關於2009年中央和地方預算執行情況與2010年中央和地方預算草案的報告, 재정부), 201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 현황 및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초안의 보고(關於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國家發展改革委'11.3.5)

주: 2010년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제시보다는 항목별로 선언성 지표가 많은 상황임.

III. 시사점

□ 중국경제 : 적극적 재정정책, 내수확대 기조 → 8% 이상 성장

-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2010년말 2조 8천억달러), 지속 증가하는 외자유입(FDI 1,057억 달러), 여전히 흑자폭이 큰 대외무역(2010년 1,831억 달러),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내수소비시장(매년 15-18% 두 자리수 성장) 등 양호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정성과 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G2로서 걸맞은 역할 요구, 적극적인 시장개방, 위안화 절상 압력, 반덤핑 등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매년 경제성장목표 발표시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아래표 참조)

〈표10〉 중국정부가 전인대에 매년 보고한 경제성장 목표 수치

목표항목	단위	2008	2009	2010	2011
GDP	%(전후)	8	8	8	8
도시신규취업인원	만명(이상)	1,000	900	900	900
도시등기실업률	%(이내)	4.5	4.6	4.6	4.6
소비자물가	%(전후)	4.8	4	3	4

자료원: 매년도 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국무원총리가 보고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 중국정부가 지난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출하고 전인대에서 통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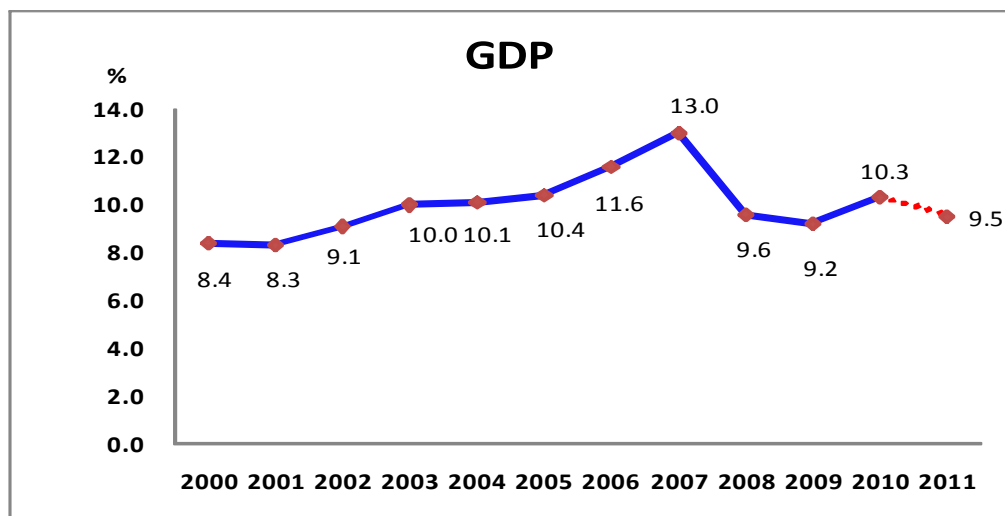
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의 경제성장목표

② 중국 재정부의 2011년 예산안 보고(關於2010年中央和地方豫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豫算草案的報告)와 관련된 재정수입 및 지출, 세수 비목별 증가 목표

- ③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의 2011년 중국경제발전계획보고(關於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에서 제시된 중국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적극적 재정정책,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내수확대 정책, 산업구조 개선 정책, 민생정책)과
- ④ 그동안의 중국정부가 시행해온 거시조절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어 경제성장을 원만하게 이끌어온 상황을 감안해 보면,

비록 외부적인 환경의 불투명성(미국, 유럽경제의 회복지연 및 잠재하는 금융불안, 일본경제의 부진 및 자연재앙, 중동의 정세불안, 자원가격의 요동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중국 경제는 정부주도하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8% 전후의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¹⁸⁾, 9%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표11〉 중국 경제성장을 추이



자료원: 각 연도 중국정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18) 중국정부는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며, 매년 초과달성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시장 : 안정적 소비증가→의료위생, 교육시장 확대

- 비록 차량취득세, 국내소비세 등의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 보다 낮게 잡혀있으나 개인소득세(7.5%증가), 국내증치세(10.5%증가) 등의 세수목표가 지난해 보다 대부분 높게 잡혀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중국내수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중국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정부가 2011년 사회소비품소매판매총액과 고정자산투자증가액을 각각 16%, 18%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음.
- 재정지출 분야별로 보면 의료위생과 교육, 사회보장 등 민생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신흥전략산업의 주요 항목이자 중국경제의 산업구조개선에 있어 핵심부문인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2자리수 이상으로 계획되고 있어, 관련 부문의 소비 역시 활성화될 전망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및 부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진출기업: 세무조사 지속 강화 예상 → 세무관리 신경써야

- 중국정부는 2009년 9,500억 위안, 2010년 1조 위안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의 효과를 거두었음. 금년에도 내수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키로하고 9,000억 위안의 적자예산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았음.
- 비록 적자규모가 매년 GDP의 2-2.5% 사이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중국정부는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해 소득분배 확대와 사회보장 제고를 약속하고 있어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임.

-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세원의 전반적인 발굴과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기업소득세, 이전가격조사, 증치세 등 세무관리에 있어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 2009중국통계적요(中國統計摘要)
- 2010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11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보고(2010年中央和地方預算執行情況與2011年中央和地方預算草案的報告, 財政部)
- 2010년 재정수지현황(2010年 財政收支情況, 財政部)
- 2010년 세수 수입증가 구조분석(2010年稅收收入增長的結構性分析, 財政部)
-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 2011.03.05 전인대보고내용)
- 201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현황과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關於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國家發展改革委 '11.3.5)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	2011.3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통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 경제 －
－ KOCHI자료 11-002 －

발행인 : 조 환 익
발행처 : KOTRA
편집인 : 곽 동 운
발행일 : 2011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K O T R A - C h i n a I n s t i t u t e

